“입보다 손발, 실천으로 태고종 변화 이끌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 행동철학 중 하나가 ‘입보다 손발’입니다. 입으로는 탁상공론을 할 수 있지만, 손발은 탁상공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리 살아왔습니다. 실천으로 태고종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9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천으로 종단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지난 6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이 취임 100일 동안 보인 첫 ‘실천’은 ‘대외 소통’이다. 상진 스님은 지방종무원을 순시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격려하고, 태고종이 보유자로 있는 인류무형유산 영산재를 시연해 박람회 유치를 기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와도 만나 지역 현안을 듣고 태고종의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청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고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대외적인 자비나눔 행보도 이어갔으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성명 · 모로코 강진 애도문 · 건군 75주년 축하메시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전 총무원장과는 차별화된 광폭 행보였다.

취임 100일 동안 이동한 주행거리만 3만㎞에 달할 정도로 상진 스님이 시간을 쪼개가며 동분서주한 이유는 명징하다. ‘대외 행보를 통한 종단 위상 강화를 위해서’다.

상진 스님은 “취임 100일 동안 대외 행보를 이어간 이유는 1차적으로는 종단 화합 때문”이라며 “그간 총무원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교구 방문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은 내면적으로 깊이가 있고 숨은 인재가 많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며 종도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수행자로서 위의를 보일 것을 이야기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협력을 약속한 것도 종단의 위상을 강화해 종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대외적 소통 행보를 보였다면, 상진 스님이 계획하는 두 번째 행보는 태고종의 잠재력을 대중에게 보이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적자종단 태고종은 어느 종단보다도 잠재력이 크다”고 자부하며 “태고종이 보유한 유 · 무형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19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실천으로 종단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취임 후 100일, 대외 행보에 중점
지역 교구, 지자체 등 만남 이어가
“종단 대외 위상 강화 위한 노력”

태고문화사업단(가칭) 설립 추진
종단 유무형 문화유산 활용 계획
교육원 신설해 교육 전문성 강화
청년회 재창립…전법 기능 확대

실제 태고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의 순천 선암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 100여 개의 전통사찰이 있는 것도 태고종의 주요 문화자산이다. 하지만 태고종은 다른 종단과 비교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진 스님은 ‘태고문화사업단(가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고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유산의 보전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법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종단 도제 양성을 위한 변화도 꾀하고 있다. 상진 스님은 기존 총무원 교무부에서 주관해온 종도 교육 전반을 신설하는 교육원에 이관키로 했다. 종단 승려 교육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지방종무원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승교화 종단을 표방하는 만큼 전법 · 포교 강화도 상진 스님의 주요한 종단 발전 복안이다. 우선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청년회 재창립을 추진한다. 조만간 새 청년회장을 임명하고 집행부를 구성해 전국 체제의 불교청년회로 발전시킨다는 게 스님의 계획이다. 또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참여해 대학생 전법도 동참키로 했다.

상진 스님은 자신의 행보가 종단 종무행정의 기틀을 만드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저 이후 종무행정을 책임질 총무원장이 종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종단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선도할 수 있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 대표 문헌 10종 세계에 알린다

조계종 문헌영역편찬위 교학 · 역사 · 예술 등 10월 27일, 봉정법회도

한국 전근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불교문헌 10종이 영어로 번역돼 세계에 배포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진우, 편찬위)는 오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 대표문헌 10권 완간 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문화 세계화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사업은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불교의 사상과 문화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문으로 출간된 10종 서적은 40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선별된 한국불교 대표 전통 문헌 5권과 현대 문헌 5권이다. 불교 교학, 선학, 문학, 역사, 철학, 사상, 사회,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선정 문헌에는 신라 의상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제자 지통 스님이 정리한 책으로, 160항목의 문답이 담긴 〈화엄경 문답〉과 한국 선의 사상적 특징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 자료로 꼽히는 〈한국의 선사상〉, 문학성과 종교성이 조화를 이룬 불교문학의 백미 〈월인천강지곡〉,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한국 고승전〉을 비롯해 조선 500년 동안 불교를 옹호한 논서 및 글을 한 권으로 묶은 〈조선 호불론〉이 포함됐다.

성철 스님의 법문을 엮은 〈선문정로〉, 법정 스님이 직접 50편의 글을 엄선해 모든 산문 선집 〈맑고 향기롭게〉, 불교의 선을 서양철학의 시각에서 분석한 〈선의 세계〉, 한국 불교학의 대표적 석학인 고익진씨가 한국 불교사상을 조망한 〈한국의 불교사상〉, 한국에서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한 〈한국의 불상〉도 영문판으로 발간됐다.

대표문헌 영역본은 봉정법회가 끝나는 대로 국내외 도서관 및 연구기관, 불교학계 저명 학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자책과 PDF파일을 제작해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구글북스(Google Books)에서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앞서 2012년에 〈한국전통사상총서〉 13권을, 2017년에 〈근대 한국 불교 대표 문헌〉 10권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간한 바 있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사부대중이 함께 정대불사를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삶 지표로”

봉은사 1229주년 정대불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봉은사 판전(版殿) 경판이 나들이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17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정대불사’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명 스님은 “정대불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삶의 지표로 삼고 불자로서 보살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의 행사”라고 설명하고 “정대불사를 봉행하는 인연으로 모든 생명이 무명의 어두움을 벗어나 부처님 자비광명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은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핵심 사찰로서 포교와 전법에 매진함으로써 불교 중흥과 국가 평안을 이뤄 나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충 대종사 30주기 추모대법회

천태종 10월 17일 구인사서 종정 도용 대종사 등 참석해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끈 대충 대종사의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가 총본산 구인사에서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10월 17일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과 김문근 단양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도용 대종사와 종단 스님, 내빈의 헌향 · 헌화로 시작됐다. 헌향 · 헌화가 끝난 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충 대종사님은 살아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셨다. 그 자비로움은 말로 표현을 다할 수 없다”면서 “매일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한결같이 모두 살피시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제도해주셨다”고 회상했다.

덕수 스님은 또 “대종사님을 친견한 불자라면 한 사람도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돌아보면 대종사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종단의 역사가 짧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때라 늘 고생만 하셨다”며 “대종사님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정진해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함께 마음을 잘 닦아서 열심히 정진해 성불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문근 단양군수는 추도사에서 “대종사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중생을 보살피고 종단 발전에 힘쓰셨다”면서 “단양군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천태종의 발전도 기원하겠다. 대종사님의 자비롭고 거룩함을 마음속에 기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반대재가 끝난 뒤 오후 1시부터 스님들과 신도들은 강 건너 대충 대종사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지냈다.

한편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낸 대충 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상월원각대조사의 뒤를 이어 제2대 종정에 취임, 천태종의 중흥을 이끌었으며,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 조실에서 원적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29주년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관 장 종상

원 장 덕민 주 지 종천
선원장 종우 교 무 정수
재 무 성심 포 교 성제
사 서 성주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 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불국사 템플스테이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